

한국문학의 ‘세계문학’ 지향에 관한 역사적 고찰

김종수
(경희대학교)

1. 서론

올 4월 미국 뉴욕에서 번역·출간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두고 한국 언론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보도하였다. 초판 10만부를 발행하고 미국 내 유명한 인사들이 운영하는 서적 소개 웹사이트에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성공적인 미국진출”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중심부라 할 뉴욕의 독자들에게 “먹히는” 한국 작품의 등장에 한국문학계와 언론매체는 한껏 고조된 듯하다.¹⁾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2011년 현재, ‘한국문학은 그간 세계문학의 영향과 추종에서 벗어나 세계문학의 일원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좀더 근원적으로 ‘왜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을 의식, 지향하여야만

1) 이 책을 미국에 번역 출판한 출판저작권 에이전트를 반도체·자동차 수출에 버금갈 수출액으로 치켜세우며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유치할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임을 역설하는 경제평론가의 판단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생각하는 대중 의식의 지향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엄마를 부탁해』를 24개국에서 번역,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출판저작권 에이전트는 자신의 목표가 “지난 20년동안 35개국에서 지속적으로 번역, 출판된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한국 작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책읽는 밤』, 이성호·정현제 연출, KBS1, 2011. 5. 17.

했으며 그 역사적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물음도 가져본다. 세계시장에서 한국 문학의 활약상을 전해 들으며 갖게 되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과와의 관계에 관한 이같은 질문은 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주장된 '한국문학의 세계화' 논의를 접하면서부터였다.

1990년대 중반 등장하기 시작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논의는 국가 차원에서 한국문학 연구자들에게 세계화를 모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범정부차원의 국가사업으로 전개된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법에 관한 연구들은 그간 전개되어왔던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검토²⁾하고 세계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한국문학에 요구³⁾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활발한 문학적 교류, 국제학술회의라거나 문인간의 국제적 교류가 강조되었고 번역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⁴⁾ 이 과정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실현해야할 구체적 과제는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집약되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발돋움하였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로 이해되며 현재까지 매년 가을이면 한국의 언론은 스웨덴 한림원의 발표에 귀를 기울인다. “한국문학의 특수성 내지 토착성을 유지하면서 세계문학의 보편성에 도달해야한다”⁵⁾는 한국문학 세계화의 근본원칙보다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이라는 구호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문학의 세계화 논의하에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서구중심의 세계문학으로부터 주변부 문학이라고 할 한국문학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학에 편입하고 싶다는 한국문학의 주변성에 대한 자각이 짙게 깔려있는 것이다.⁶⁾ 그간 '한국문학의

2) 대표적으로 이태동, 「한국문학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계문학비교연구』 4, 2000.; 권영민,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4, 2000.과 같은 논문이 있다.

3) 다음과 같은 논문이 그 예이다. 김양선, 「한국소설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세계문학비교연구』 24, 2008 가을.; 양진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 『한민족문학』 51, 2007.

4) 주지하다시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수행하기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문학 작품의 번역사업을 국가가 주도하기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이 2001년 3월에 출범하였다.

5) 김양선, 「한국소설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세계문학비교연구』 24, 2008 가을.

세계화' 구호를 둘러싸고 진행해온 일련의 사업과 논의를 무가치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문학의 세계문학 지향에 관한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한국 근대문학 100년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한국문학은 서구중심의 세계문학을 기준점으로 삼아 자기 갱신의 과정을 전개해왔다. 한국문학이 세계문학과의 연관 속에서 논의를 전개했던 까닭은 한국문학의 정체성 구축을 위해 보편적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식민지시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이 직면하고있는 전지구적인 문학환경은 한국문학이 그 자체만으로 완결될 수 있는 자족적인 존재가 결코 아님을 말해준다. 근대 문학의 형성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이 모방하고 추구해야 할 보편성으로서의 세계문학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며, 세계문학에서 보편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문학은 자기갱신의 동력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한국문학은 세계문학과의 끊임없이 교섭하고 소통하며 새롭게 구성될 것을 요구받고 있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본고는 한국문학이 근대 출발부터 세계문학을 지향하며 형성해온 자기갱신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 설정의 맥락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2. '근대 적응'을 위한 세계문학의 수용과 문학간 위계관계의 내면화

한국문학의 세계문학 지향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논하는 자리에서 문학에 대한 근대적 지식을 생산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이광수의 주장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광수는 최초의 한국 근대소설가일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문학론의 개척자로서 비평사의 새 장을 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문학론은 첫

6)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학인들도 유럽의 노벨문학상 발표 소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의 문인들도 노벨문학상을 타도록 애쓰자는 대담이 잡지에 자주 실리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1932.11.13.와 1930년대 거의 매년 노벨문학상 소식이 신문에 게재되었다.

번째 일본유학 시절 쓴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1908)와 「文學의 價値」(1910)로부터 시작한다. 앞의 글에서 이광수는 오로지 국문을 써서 문화의 빠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뒷글에서는 “情의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글들은 문학의 형식 조건을 다루고 서구적 뜻에 따른 문학의 내용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후 발표한 「문학이란 何오」(1916)의 전초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근대문학론의 최초의 확립”⁷⁾이 이루어졌다는 문학사가의 평가뿐만 아니라 근대적 문학론의 요소를 비교적 명확하게 갖추고 있다고 인정⁸⁾되는 「문학이란 何오」(1916)의 혁신성은 서양에 대한 적응을 기초로 하는 자기개조에 있었다.

금일 소위 文學이라 함은 西洋人이 使用하는 文學이라는 語義를 취함
이니 西洋의 Literatur 혹은 Literature라는 語를 文學이라는 語로 翻譯하
였다 함이 適當하다. 고로 文學이라는 語는 在來의 文學으로의 文學이
아니요, 西洋語에 文學이라는 語義를 表하는 者로의 文學이라 할지라⁹⁾

중세 조선과의 결별을 선언한 이광수는 새로운 조선문학을 모색하기 위해 문명개화한 서양문학을 새로운 보편문학으로 삼았다. 「문학이란 何오」가 중세의 문학 전통과 단절되어 있는 점은 대부분의 논자가 거론한 바인데, 전통적인 문의 이념에서 분리된 문학의 구상은 문학에 있어서의 중화적 보편주의로부터 분명한 해방을 명시한다. 전근대 조선에서 중국은 보편적 문화의 중심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중국을 철저히 타자로 간주하며 설정하고 있는 “朝鮮人이 朝鮮文으로 作한” 조선문학은 근대적인 성분이라고 할 민족문학의 개념을 담고 있었다. 새롭게 모방하고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서 서양문학이라는 ‘보편성’의 인식이 자국문학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나 자각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문학이라는 역어의 정착은 다시 말하면

7) 김윤식, 「초창기의 문학론과 비평의 양상」, 『근대한국문학연구』, 일지사, 1973. 65쪽.

8) 김태준, 「이광수의 문학론-문학이란 하오를 중심으로」, 『춘원 이광수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4.

9) 이광수, 「문학이란 하오」, 『이광수전집1』, 삼중당, 1966, 507쪽.

서양문학의 역사, 이론, 해석이 자국문학에 대한 인식의 준거로 원용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사건”¹⁰⁾이 된다.

이광수는 「문학이란 何오」에서 <新舊語意의 相異>, <文學의 定義>, <文學의 種類> 항목을 서술하며 문학의 말의 뜻과 형식 내용에서 모두 서양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文學과 感情>, <文學의 材料>, <文學의 實效>, <文學과 文> 항목에서는 情의 만족을 강조하고 묘사론을 중시하여 서양의 문학개념에 다가간다. 특히 이광수는 <文學과 道德>, <文學과 民族性>, <文學과 文學者>, <朝鮮文學>의 항목을 통해 조선 문학사의 전통을 비판하며 과거 조선의 문학 전체를 부정하는 급진적 면모를 보여준다. “朝鮮文學은 오직 將來가 有할 뿐이고, 過去는 無하다 함이 適當”하다는 결론적인 주장은 조선문학 전체의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관에서 이광수는 『심청전』이나 『춘향전』을 “한푼짜리 문학”, “장마버섯 문학”으로 폄하하는 반면, “호메로스, 셰익스피어의 作物 등은 世界人類의 大寶”¹¹⁾라고 추켜세우고 일본의 坪内逍遙, 夏目漱石, 森鷗外는 훌륭하고 退溪와 栗谷은 중국의 숭배자라고 원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근대 시대 문(文)의 장에서 중국과 조선은 일원적 보편성의 측면에서 사유되었으나 서양문학의 수용을 통해 조선문학은 그 독자성이나 개별성이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나, 서양문학을 조선문학 사유의 보편적 준거틀로 받아들이며 형성된 조선문학에 대한 자각의 과정은 서양문학과 조선문학의 관계를 ‘차이’로 인식했다기보다 모방·추구해야 할 일원적 위계관계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근대 중국이 조선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서양이 대체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광수가 서양문학의 수용을 통해 조선문학의 개별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면 1920년대 후반 ‘해외문학파’¹²⁾는 조선문학과 세계문학의 상호

10) 황중연, 「문학이라는 역어」, 『동악어문논집』32, 1997, 465쪽.

11) 이광수, 「문학이란 하오」, 『이광수전집1』, 삼중당, 1966, 527쪽.

12) 해외문학파라는 명칭이 당시 외국문학 전공자를 모두 일컫는 명칭은 아니다. 잡지 『해외문학』을 창간한 1926년 동경유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외국문학연구회’ 동인을 포함하면서 『해외문학』의 발간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했던 일군의 문학인들이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윤, 김진섭, 이선근, 정인섭 등이 주요

범위를 확장할 것을 주장한다. 서양문학 전공지식을 통해 당시 조선문단을 주도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사유와 문단에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는 참신함을 바탕으로 등장한 해외문학과는 조선문학의 건설과 세계문학의 영역 확장을 그 기조로 내세웠던 것이다.

무릇 新文學의 創設은 外國文學輸入으로 그 記錄을 비롯한다. 우리가 外國文學을 研究하는 것은 결코 外國文學研究 그것만이 目的이 아니요, 첫째는 우리 文學의 建設, 둘째는 世界文學의 相互範圍를 넓히는 데 있다.¹³⁾

하지만 이들이 “문화국가의 건립이라는 유럽 인본주의적 이념을 식민지 조선의 민족문화적 쇄신으로 전용하여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지름길”임을 역설하며 “세계문학만이 세계에 보편타당한 문학임을 확인”¹⁴⁾하는 과정에서 조선문학이 수용해야 할 세계문학의 보편성만을 강조하였다. 해외문학과와 주장에는 조선문학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부재하였던 것이다. 1920년대 후반 조선의 식민지 상황은 “외세에 저항하는 문학이 되 다른 한편으로 봉건적 잔재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문학”¹⁵⁾을 요청하고 있었다. 조선이 봉착했던 근대문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추종한 해외문학과와 행보는 세계문학을 조선 영역 밖의 도달할 수 없는 ‘무엇’으로 상정하고 타자의 세계성을 추종하는 데에 조선문학의 미래가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세계문학을 허구화된 보편개념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그래서 1930년대 해외문학과와 구성원들이 보여준 유럽중심적 세계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었지만 “잔인한 식민주의 체제를 조금도 갈등하지 않으며 개체주의적 인본성을 민족정신 수호의 유일한 수단으로 강조”하는 것은 “비정치적 구심 속에서 민족정신을 바라보는 보

구성원이었다.

- 13) 이하운, 「창간 권두사」, 『해외문학』1, 1927, 1쪽.
 14) 김규창, 「괴테의 세계문학 개념과 그 한국적 수용」, 『독일어문학』16집, 2001, 12-13쪽.
 15) 김윤식, 『한국문학의 근대성 비판』, 문예출판사, 1993, 12쪽.

수적 경향¹⁶⁾이었던 것이다. 해외문학과에게 세계문학은 조선문학의 현실적 조건과는 무관한 높은 경지로 인식되어 결과적으로 조선문학의 무기력함을 강화할 뿐이었다.

유럽 시민전통문화로서의 서양문학 고전을 강조하던 해외문학과와 당시 철저히 대립하던 프로문학 진영에서도 계급문학의 세계문학적 전개에 관심을 보였다. 카프 2세대의 핵심 구성원인 임화는 조선 계급문학의 건설을 목표로 당시 유럽의 계급문학작품을 신문에 소개하였다. “西班牙의 뽀라스코 이바네스, 露西亞의 막심 꼴끼, 英國의 쫘지-킷싱그, 挪웨이의 구느드 함오슨, 요한-포엔, 덴마크의 마틴안더손”¹⁷⁾은 유럽 자본주의에 희생된 노동계급의 비참한 일상을 소설화한 세계적인 작가로 거론되며 조선의 프롤레타리아트 문인들이 추구해야 할 세계문학의 사례로 거론되었다. 이들을 근거로 1920년대 후반 임화가 제기한 계급문학론은 자국문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 혹은 일국 단위의 문학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외국의 계급문학과 연대나 공동 보조를 통해 일종의 세계문학을 지향한 이념¹⁸⁾이 되었다. 그러나 임화가 상정한 계급문학의 국제주의는 조선계급문학의 후진성을 전제하고 그 극복을 목표로 세계계급문학의 수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해외문학과가 식민지 조선의 현실조건을 몰각한 채 허구적 보편성으로서의 세계문학을 추종했다면, 임화는 식민지 조선의 첨예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계급적 세계문학의 모방을 요구했던 것이다.

근대문학의 선구자 이광수나 세계문학을 소개한 해외문학과, 그리고 카프 활동 초기 계급문학론을 주장한 임화는 유럽을 세계문학의 중심으로 보고 유럽의 문학활동을 조선문학의 준거틀로 인식하였다. 이들의 인식은 “근대”에 적응하기 위한 조선지식인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유럽문학을 세계문학

16) 김규창, 앞의 글, 15쪽.

17) 위 작가들은 임화가 “星兒”와 “林和”라는 이름으로 『조선일보』 1926년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1927년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게재한 「무산계급을 주제로 한 세계적 작가와 작품」에서 소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국적과 이름만을 간추려 제시하였다.

18) 신두원, 「계급문학, 민족문학, 세계문학-임화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21, 2002, 39쪽. 참조.

으로 인식하였던 그들은 유럽문학활동의 모방으로 조선의 문학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고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반봉건적 상황’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문인들의 고투는 유럽중심의 세계문학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조선의 신문학을 구축할 수 있다고 사고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문학과 그 영향으로 근대적 문학을 형성하려고 했던 주변부 문학 간의 위계관계가 식민지 문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내면화되었던 것이다.

3. 운동으로서의 세계문학과 문학간 위계구도의 탈피 시도

식민지 말기에 임화는 이식과 전통의 변증법적 인식을 토대로 조선의 신문학을 규정하였으나 그 역시 세계문학이 곧 서구문학이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없었다. 조선문학의 발전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서구중심의 세계문학이었기 때문에 세계문학에 포함되지 않는 조선문학은 서구문학을 따라가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문학의 장에서 세계문학이 곧 서구문학이라고 믿어 왔던 인식에 변화가 온 것은 1970-80년대에 들어서였다. 조동일과 백낙청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한국문학의 현재적 조건이 세계문학에 기여하고 있고,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대 문인들이 보여주었던 서구중심의 세계문학 인식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조동일은 그동안 세계문학에서 제외되었거나 변두리라고 생각하였던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우선 “서구문학이 세계문학이라고 믿었던,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특정 문학을 세계문학이라고 전제한 것에 대한 반성”¹⁹⁾을 촉구하였다. 그는 특정문학간의 중심-주변의 틀을 제거하기 위해 “세계문학을 인류가 이룬 문학의 총체”로 규정한다. 세계문학이 곧 서구문학이라는 그간의 관습적인 인식을 반성할

19)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관련 양상의 문제점」, 『정신문화연구』, 1983 겨울호. 209쪽.

뿐만 아니라 문학의 보편적 요소의 변화도 세계문학의 개념에 포섭하였다. 이제 세계문학은 지역적 변이의 총체이면서 역사적 축적의 총체로 상정되는 것이다. “종족문학에서 민족문학으로 그리고 그 민족문학들의 합이 세계문학”이라는 조동일의 논리를 따르면 일찍부터 민족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의 모범이 된다.

유럽중심의 세계문학을 근대문학의 준거틀로 상정하여 세계문학과 조선문학을 중심과 주변의 위계 구도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시기 문인들의 열등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민족문학의 모범적 사례로서의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의 바람직한 상으로 인식하는 조동일에게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은 더 이상 ‘영향-수용관계’라기보다는 평등한 민족문학과 그 총합의 관계이다. 조동일이 파악한 개별존재와 그 합의 관계로 파악되는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에서는 여러 곳의 문학이 흥미로운 공통점을 보여줄 때 누가 주는 쪽이고 누가 받는 쪽인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공통성과 관련성의 의미를 깊게 파헤치는 것이 긴요한 과제가 된다. 이것은 문학권의 영향관계에 치우치기보다는 연구대상이 되는 문학권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공통-관련성을 찾자는 논리로 나아간다. 조동일의 이같은 주장은 비교문학의 전통적인 접근법²⁰⁾이라 할 ‘영향-수용’ 관계의 심층에 자리한 위계구조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지향의 세계문학에 대한 방향전환을 역설하고 나온 조동일은 또한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민족간의 평등한 관계에 의거, 억압과 착취없는 국제사회를 이룩하려는 제 3 세계 국가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다. “제1세계 따라가다가 길을 잃지 말고, 제 2세계에 뒤늦게 가담해 막차탄 신세가 되지 말고, 제3세계의 자랑스러운 역군으로서 세계사적 사

20) “영향과 원천연구로서의 비교문학은 자국문학과 외국문학과의 교류관계를 주로 하되, 그들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밝혀 자국문학을 세계문학적 차원에서 동시적인 특성을 발견하고 아울러 세계문학의 공통성이나 유사성을 찾아내려고 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김학동, 『비교문학』, 새문사, 1999, 27쪽. 전통적인 비교문학연구에서는 영향관계의 실증적 차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해석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영향-수용’의 관계 규명에 집중하는데, 이 관계는 위계구조를 내포하기 마련이다.

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바른 길”²¹⁾이라는 주장에서 보듯, 한국의 민족문학 역시 제 3 세계적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세계문학의 바람직한 방향을 개척할 수 있다고 본다. 조동일은 개별문학의 여러 문명권을 넘나드는 거시적 대비를 통해 세계문학의 보편성과 그 변이 양상을 찾는 비교문학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인 스스로에게 주변적이고 열등하게 인식되어왔던 한국문학의 위상을 재인식하게 하였다. 한국중심적 사고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으나 무엇보다 그가 제시한 세계문학론은 한국문학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일방적인 영향-수용관계로 이해한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에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제 3 세계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백낙청이 먼저였다. 조동일이 종족문학의 통합체로서의 민족문학을 상정하고 민족문학의 합이 세계문학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과 다르게 백낙청이 설정한 민족문학은 역사적 개념이었다.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구성원의 복지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에서 현재의 역사적 상황을 반식민, 반봉건으로 규정하여 그 극복을 이룩해야할 한국의 근대문학은 곧 민족문학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민족문학은 전세계가 봉착하고 있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피식민, 피압박 민족의 대립 상황을 극복해야할 세계문학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백낙청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문학의 선진적 과제”란 식민주의나 제국주의가 봉착한 비인간화 상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식민지적 상황에서 삶 본연의 요구에 충실한 민족의식을 지닌 작가는 구체적 현실에 충실함으로써 세계문학의 선진적 과제를 감당하게 된다²²⁾는 것이다. 즉 식민지(혹은 반식민지) 상태를 탈피하지 못한 제 3 세계의 민족문학은 식민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저항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리이지만 선진국의 문학은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달성할 수 없는 자체내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세계문학의 선진적 과제는 제 3 세계의 민족문학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4면.

22)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123-138쪽.

백낙청은 “제 3세계라는 용어는 세계를 셋으로 갈라놓는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로 묶어서 보는 데 그 참뜻이 있는 것이며 하나로 묶어서 보되 제1세계 또는 제2세계의 강자와 부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민중의 입장에서 보자”²³⁾고 주장한다. 백낙청의 제 3 세계론에서 “제 3 세계”는 지역적 범위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뛰어넘은 계급적 연대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는 구체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지역과 제 1·2세계의 민중을 포함하여 민중적 체험을 가장 생생하게 담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제 3 세계적 자기 인식이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본질에 대해 세계사의 현단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인식을 겸하고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백낙청이 주장하는 제 3 세계 민족문학론은 구체화된 작중현실이 오늘날 민족구성원 다수가 체험하고 여타 제3세계 민중들과 공유하는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문학이 된다는 점에서 세계문학의 위상을 획득하게 된다. 백낙청이 생각하는 민족문학은 역사철학적 과제를 해결할 운동으로서의 개념으로 전지구적 상황에 대응하여 민족문학의 성격을 세계문학과 동일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조동일과 백낙청이 거론한 1970-80년대 세계문학의 이념은 모든 개별 문학의 가치를 포용하되 각시대의 세계사적 과제에 역동적으로 응답한 문학적 성취를 중심으로 하여 파악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시민사회의 성립 발전기를 배경으로 성숙한 서구 근대문학이 서구 중심주의의 허구를 벗겨내고도 세계문학적 의의를 잃지 않았던 까닭은 그것이 “이 시대의 인류사적 단계에서 인간 개체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연대를 향한 문학상의 성취로 값진 範例的 價値”²⁴⁾를 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구가 세계를 자본주의 시장과 식민영토로 지배하는 이익에 안주하면서 시민사회 성립기의 이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기만하게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구 현대문학의 심각한 혼돈으로 전이된 것이다. 한국문학을 포함한 제3세계 문학이 민족문학으로서 소중할 뿐 아니라 세계문학적 의의까지 지닌

23) 백낙청, 「제3세계의 문학을 보는 눈」,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창작과비평사, 1985, 169쪽.

24) 김홍규, 「한국문학의 위상」, 『한국문학의 이해』, 1986, 민음사, 213쪽.

다고 말하여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제 3 세계 문학은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의 경험을 딛고 일어난 세계역사의 주체적 일원으로 서고자 하는 그들의 모색이 그릇된 세계질서의 재편성과 내부적 모순의 극복을 통해 인류사의 이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세계문학의 지평에 수렴되는 것이다. 조동일과 백낙청은 식민지 조선문학자들이 내면화하였던 서구중심의 세계문학과 조선문학 간의 위계구도를 탈피하여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태로 규정함으로써 세계문학이 곧 유럽 서구문학이라는 관습적 인식을 타파하려고 하였다.

4. 새로운 비교문학을 통한 한국문학의 보편성 모색

1990년대 전지구적 자본주의 세계화시대가 도래하며 한국문학은, 서론에서도 일별했듯이,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렸다.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배경으로 정치구호처럼 난무하는 ‘한국문학의 세계화’ 논의는 때로는 전지구적 상품문화론의 입장으로, 때로는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전개되며 “문학마켓팅”²⁵⁾이 한국문학의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외적 조건인 듯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계문학론’에 대한 관심은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좋은 문학,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은 문학적 기준을 성취하면서도 보편적인 공감을 끌어내는 문학으로서의 세계문학 지향은 ‘세계화 시대에 한국문학은 무엇인가’라는 성찰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 3 세계 한국 민족문학의 존재적 가치를 세계문학으로 확장하여 인식하였던 1970년대 백낙청의 인식은 1990년대 후반 “세계시장의 지구화와 그에 상응하는 지적 생산의 변모”를 간파, 이에 대처하고자 제시된 ‘괴테와 맑스의 세계문학 구상’에 주목한다. 백낙청이 설정한 “괴테·맑스적 기획”으로서의 세계문학은 “일국적 편향성과 편협성”을 극복하고 “문학지식인들의 전지구적

25) 이태동, 앞의 글, 41쪽.

연대와 현대적 고전창출"이라는 세계문학운동의 목표로 수립된다. 현대의 전지구적 자본주의 문화환경을, 파키스탄출신 작가 타리크 알리가 표현한 “시장리얼리즘”으로 규정한 백낙청²⁶⁾은 민족문학이 서구의 중심부를 비판하는 제3세계적 시야를 가짐으로써 세계문학의 일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1970년대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백낙청이 제기하는 세계문학론과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동질화라는 현실 맥락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커가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세계문학론은 최근 영미문학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평론가들에 의해 소개된 빠스칼 까자노바Pascale Casanova의 “세계문학 공간world literary space”과 프랑꼬 모레띠Franco Moretti의 “세계문학 체제world literary system”는 임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에 기대어 세계문학을 질료들의 집합이 아닌 그들이 맺는 관계망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문학 인식에 관한 구조주의적 전환이 일어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들이 제기한 “하나이면서 불평등한 세계문학”의 개념이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에서 도출된 것이다.²⁷⁾ 여기에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글로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작품에 대한 세밀한 독서를 강조하는 댄로시 David Damrosch는 앞선 두 이론가의 한계를 보완하며 “세계의 축을 따라 구체적인 문학적 효과를 검토하는 책읽기의 즐거움”을 수행할 세계문학론을 주장하고 있다.²⁸⁾ 최근에 논의되는 세계문학론은 문학의 단위로서 국가라는 틀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개별 국가와 민족의 범위에서 확장된 세계문학적 독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서구 중심의 비교문학 연구를 대체하며 문학연구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세계문학 담론의 문학적 상황에서 볼 때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의 장에 이미 편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구도에서

26) 백낙청, 「지구화시대의 민족과 문학」, 『내일을 여는 작가』, 1997. 1·2월호.

27) 까자노바와 모레띠가 전개하는 논의의 특징은 아일린 줄리언, 「최근의 세계문학 논쟁과 (반)주변부」, 『안과밖』 8호, 2005; 윤혜준, 「도표, 지도, 명단」, 『현대비평과 이론』 30, 2008, 박성창, 「세계문학론은 가능한가?」, 『현대비평과 이론』 30, 2008.

28) 박성창, 「민족문학·비교문학·세계문학」, 『안과밖』 28, 2010, 160쪽.

중심부와 주변부의 접점에 놓여 있는 한국문학은 자본주의적 세계화가 빚어 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들을 관찰하고 기술할 수 있는 훌륭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사이에 벌어지는 접촉, 교환, 유통의 양상들은 공간의 병치라는 단순한 도식을 뛰어 넘어 보다 복합적인 논리의 틀을 요구한다.”²⁹⁾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구호보다는 한국문학의 보편성 탐구라는 성찰적 입장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문학 전공자이면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박성창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경계’를 사유하면서 한국문학의 보편성을 탐색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방법론적 모색으로 새로운 비교문학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박성창은 한국문학이 외국문학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한국의 비교문학 연구가 영향의 문제를 너무 집중하고 “영향의 문제를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파악하면서 한국문학 연구는 한국문학의 결함이나 불모성만을 강조하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 실패”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가 김현의 저작을 예로 들며 “발생론적으로 무관한 문학적 현상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원리나 목적을 탐구하는 비교문학적 방법론”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며 그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모두 ‘문학의 보편성’으로 포섭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세계문학이 한국문학이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아니라 세계문학이 상정하고 있는 문학의 보편성을 한국문학이 함께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보편성과 특수성의 부단한 왕복운동”³⁰⁾을 시도하는 비교문학적 방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박성창이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경계를 사유하며 ‘문학의 보편성’을 성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 박상진은 ‘보편’ 자체를 의심하면서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를 재구한다. 그에게 세계문학의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보편의 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문학 전공자인 박상진은 “근대와 서구를 넘어서서 보편적 문학 가치를 다시 물어야 할 한국문학계에서 세계문학이란 개념은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는 자기반성의 계기이며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로 설정하고 “세

29) 박성창, 『글로벌 시대의 한국문학』, 민음사, 2009, 9쪽.

30) 박성창, 『글로벌 시대의 한국문학』, 민음사, 2009, 32쪽.

계문학은 국민문학들로서의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분리가 결코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을 인식하게 해주며, 나아가 세계화와 근대화에 관련된 인류문명적 차원의 사고와 비평을 펼치게”한다고 주장한다. 박상진이 보기에 세계문학론에서 거론되는 보편주의는 “유럽적 보편주의”이며 과거의 유럽적 보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문학의 문제에서 새롭게 맞아야 할 보편적 보편주의”를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전개되는 세계문학론은 보편적 문학 가치를 다시 보게 해주는 의식의 “유희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며 보편을 의심하는 유희적 의식은 문학의 기본 속성인 “비동일화의 지평”³¹⁾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성창은 보편에의 지향을 강조하고, 박상진은 보편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두 사람이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세계문학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강조하는 것은 비교문학적 방법이다. 이때 비교문학은 기존 비교문학이 노정해왔던 해외문학과 한국문학의 영향-수용관계에 근거한 한국문학의 변화 발전에 작용한 근본동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을 타자화와 비동일화의 지평 속에서 부단히 비교하고 성찰하는 새로운 비교문학이다. 비교문학의 새로운 접근이 한국문학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갱신을 유도할 수 있는 길임을 역설한다. 이들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타자로 이해되던 것에서 탈피하여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을 타자화하고, 세계문학을 규정하던 보편성에 물음을 던져 보편의 갱신을 도모함으로써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간에 보편성의 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세계화 시대 한국문학의 갱신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광수를 시작으로 하여 식민지 시기 문학자들이 세계문학과의 위계 구도를 설정하며 문학의 독립을 도모하고 자기 갱신을 시도하였던 한국문학은 1970-80년대 세계사적 운동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문학을 설정함으로써 세계문학과의 오랜 위계관계를 탈피하려 시도하였고, 최근에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새로운 비교문학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두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문학의 ‘보편성’을 지향, 성찰하며 한국문학의 정체성을 정립하려고 시도하고

31) 박상진, 「세계문학의 과제와 보편의 문제」, 『비교문화연구』 23, 2011. 95쪽.

있는 것이다.

5. 결론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가 직면했던 전지구적 자본주의 세계화시대는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추동하였다. 한국문학의 자발적인 필요성보다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법으로 진행되어 온 “한국문학의 세계화” 논의는 현재 전지구적 문학마케팅의 필요성이 당연시되고, 민족주의적 시각에 따른 수출역군으로 한국문학을 한정하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계문학론’에 대한 관심은 한국문학의 존재와 위상을 새롭게 검토할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좋은 문학, 보편적인 공감을 끌어내는 문학으로서의 세계문학 지향은 ‘세계화 시대에 한국문학은 무엇인가’라는 성찰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의 세계문학 지향의 의의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문학이 근대 출발부터 세계문학을 지향하며 형성해온 자기갱신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관한 성찰을 시도하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맥락화해 보았다.

근대문학의 선구자 이광수나 세계문학을 소개한 해외문학과, 그리고 카프 활동 초기 계급문학론을 주장한 임화는 유럽을 세계문학의 중심으로 보고 유럽의 문학활동을 조선문학의 준거틀로 인식하였다. 이들의 인식은 “근대”에 적응하기 위한 조선지식인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유럽문학을 세계문학으로 인식하였던 그들은 유럽문학 활동의 모방으로 조선의 문학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고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반봉건적 상황’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 문인들의 고투는 유럽중심의 세계문학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조선의 신문학을 구축할 수 있다고 사고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문학과 그 영향으로 근대적 문학을 형성하려고 했던 주변부 문학 간의 위계관계가 식민지 문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내면화되었던 것이다.

1970-80년대 조동일과 백낙청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한국문학의 현재적 조건이 세계문학에 기여하고 있고,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대 문인들이 보여주었던 서구중심의 세계문학 인식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식민지 조선 문학자들이 내면화하였던 서구중심의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간의 위계구도를 탈피하여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태로 규정함으로써 세계문학이 곧 유럽 서구문학이라는 관습적 인식을 타파하려고 하였다.

최근에 논의되는 세계문학론은 문학의 단위로서 국가라는 틀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개별 국가와 민족의 범위에서 확장된 세계문학적 독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서구 중심의 비교문학 연구를 대체하며 문학연구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박상창은 보편에의 지향을 강조하고, 박상진은 보편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세계문학과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방법으로서의 비교문학적 방법이다. 이들은 비교문학의 새로운 접근이 한국문학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갱신을 유도할 수 있는 길임을 역설한다.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타자로 이해되던 것에서 탈피하여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을 타자화하고, 세계문학을 규정하던 보편성에 물음을 던져 보편의 갱신을 도모함으로써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간에 보편성의 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세계화 시대 한국문학의 갱신을 위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한국문학가들이 세계문학과와의 위계적 관계를 구축하여 조선문학의 독립적 성격을 마련하였다면, 1970-80년대 한국문학 연구가들은 세계사적 질곡을 극복할 민족문학의 구현을 통해 세계문학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상정하였고, 2000년대 문학연구자들은 세계문학 논의로 촉발된 보편에의 지향과 보편에 대한 물음을 전개하면서 한국문학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비교문학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규창, 「괴테의 세계문학 개념과 그 한국적 수용」, 『독일어문학』 16집, 2001.
- 김양선, 「한국소설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세계문학비교연구』 24, 2008 가을.
- 김윤식, 「초창기의 문학과 비평의 양상」, 『근대한국문학연구』, 일지사, 1973.
- _____, 『한국문학의 근대성 비판』, 문예출판사, 1993.
- 김태준, 「이광수의 문학론-문학이란 하오를 중심으로」, 『춘원 이광수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4.
- 김학동, 『비교문학』, 새문사, 1999
- 김홍규, 「한국문학의 위상」,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 박상진, 「세계문학의 과제와 보편의 문제」, 『비교문화연구』 23, 2011.
- _____, 『비동일화의 지평』, 고려대출판부, 2010.
- 박성창, 「민족문학·비교문학·세계문학」, 『안과밖』 28, 2010.
- _____, 「세계문학론은 가능한가?」, 『현대비평과 이론』 30, 2008.
- _____, 『글로벌 시대의 한국문학』, 민음사, 2009.
-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 _____, 「제3세계의 문학을 보는 눈」,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창작과비평사, 1985.
- _____, 「지구화시대의 민족과 문학」, 『내일을 여는 작가』1997. 1·2월호.
- 신두원, 「계급문학, 민족문학, 세계문학-입화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21, 2002
- 아일린 줄리언, 「최근의 세계문학 논쟁과 (반)주변부」, 『안과밖』 8호, 2005.
- 양진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 『한민족문학』 51, 2007.
- 윤혜준, 「도표, 지도, 명단」, 『현대비평과 이론』 30, 2008.
- 이광수, 「문학이란 하오」, 『이광수전집1』, 삼중당, 1966.
- 이성호·정현재 연출, 『책읽는 밤』, KBS1, 2011. 5. 17.
- 이태동, 「한국문학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계비교문학연구』 4, 2000.
-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관련 양상의 문제점」, 『정신문화연구』 1983, 겨울호.
- _____,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 황중연, 「문학이라는 역어」, 『동악어문논집』 32, 1997.

❖ ABSTRACT

A Study on World literature-Oriented Korean Literature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ry Criticism

Kim, Jongsoo

This article studies that Korean literature has been renewed to World literature-oriented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ry criticism from early modern period to present for reflecting the slogan,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as well as contextualizing the necessity, "new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iterature and World literature".

Some writers, such as Lee Gwangsoo a pioneer of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the group for foreign literature[haioei-munhak-pa] introducing World literature to Korea and Lim hwa a prominent critic of proletarian literary theory under Japanese Colonial period, have understood European literature as World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had to reach. Inevitably the hierarchical relation between Korean literature and European literature as World literature had been interiorized to them.

Meanwhile Jo Dong-il and Paik Nak-chung who have been representative researchers of Korean literature had tried to broken down the hierarchical relation between Korean literature and European literature interiorized to Korean writers until the 1980s, with Korean literature could be accomplished to World literature meaning.

Since the late 1990s Park Sung-chang and Park Sang-jin who are leading researchers of comparative literature in Korea these days, have emphasized the methodology of new comparative literature for 'universality of literature' between Korean literature and World literature, which have been the renewal way of Korean literature in today's age of globalization.

Key Words

한국문학, 세계문학, 비교문학, 보편성, 위계구도

Korean Literature, World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Universality,
Hierarchical Relation

논문접수일: 2011. 10. 20.

심사완료일: 2011. 12. 05.

게재확정일: 2011. 12. 09.